

한국문학의 토양 기름지게 한 근대작가들 복원

문학사에서 소외돼왔던 1930년대 작가들 새롭게 조명한 전집물

한국근대문학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었거나 부분적으로 정리돼오던 근대작가들의 문학전집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백석전집》(실천문학사), 《노천명 전집》(술), 《김유정 전집》(강) 등이 출간되었고, 총17권 예정으로 간행되고 있는 《이태준 문학전집》(깊은샘)도 《왕자호동》·《황진이》 등 두권을 보냈다. 전집은 아니지만 천태산인 김태준의 국문학 연구성과를 집약한 《김태준 문학사론 전집》(현대실학사)도 나왔다.

술의 함정임 편집부장은 “그동안 국문학계에 축적됐던 연구성과와 출판계의 역량이 어우러져 전집출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면서 현대작가들은 문학의 전범을 보여주었던 근대작가들과의 정신적인 연계성을 통해 새로운 문학의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30년대 작가들의 르네상스

올해 전집으로 발간된 작가들은 대부분 1930년대에 등단하거나 가장 정열적인 작품 활동을 벌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북·월북·남북 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념의 장막에 가려 문학사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우리 문학에 희귀한 북방정서와 향토의식을 담아낸 문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백석 전집》은 재북작가라는 이유 때문에 냉전적 반공의식에 가려져 한때 문학사에서 매몰될 운명에 놓였던 백석의 시·수필·소설·동화시·평문·정론 등을 수록했다. 1987년 이동순 교수(영남대)에 의해 발간된 《백석 시전집》이 일제하의 작품에만 국한되었다면 이 전집은 8·15 이후 북한에서의 문학 활동까지 포함시켰다.

백석의 시세계는 근대세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공동체적인 삶을 민속적 상상력과 북방언어의 복원을 통해 되살리고 있다고 평가된다. 고향의 자족적이고 인정이 넘치는 세계가 사라진 데서 오는 상실감을 그린 《여우난골족(族)》, 가난한 가족의 저녁 풍경에서 시인이 느끼는 ‘외롭고 높고 쓸쓸한’ 심정을 읊은 《흰 바람벽이 있어》 등은 당대의 절창으로 꼽힌다.

해방 이후 동화의 세계에 몰입한 그는 《큰 문제 작은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유년들의

근대문학사에 공백으로 남아 있던 근대 작가들의 문학전집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백석·노천명·김유정·이태준·김태준 등 그동안 이념의 장막에 가려 소외돼왔던 문인들도 포함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작가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점에서 이들의 전집물 출간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세계는 고양이와 집토끼를, 형겔곰과 나무송아지를 동무로 생각하는 세계이다”고 규정하면서, 유년문학에서 계급의식과 같은 사상정보보다는 웃음의 철학을 통해서 사물과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아동문학의 이념을 자신의 동화시집 《집게네 네 형제》에서 구체화시켰다.

백석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단에서 희귀한 북방의 언어감각과 정서를 시화한 노천명 전집이 《시슴(시)》과 《나비(산문)》의 두권으로 묶였다. 이 전집은 철저한 정문화 작업과 자료발굴을 통해 노천명의 문학적 복권을 꾀한다. 일년여 동안 도서관의 자료를 섭렵하면서 유실될 뻔한 노천명 시를 복원하고, 기존 판본과 일일이 대조하여 오자나 잘못된 현대 표기들을 바로잡고 통일했다. 특히 〈고성허에서〉, 〈봄잔디 위에서〉, 〈축석루에 올라〉 등의 시와 〈광인〉, 〈나의 신생활 계획〉 등의 산문, 〈일편단심〉, 〈닭 쫓던 개〉 등을 처음으로 발굴, 수록했다.

노천명은 여성 시인의 불모지였던 1930년대 시단에서 민족 원형적이고 전통적인 정서를 절제된 언어를 통해 표현했다. 일제 말기의 친일시 파문이나 한국전쟁기의 문학가동맹 가입으로 인한 부역행위,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따른 일방적 폄하와 오해로 인해 그 실상과 문학성이 가려진 노천명의 문학적 전모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왼쪽 위부터
이태준·김태준·
김유정·백석·
노천명.



철저한 원본검토와 판본 오류 정정

30년대 소설문단에서 단편소설의 경지를 개척한 김유정과 이태준의 전집도 출간되었다. 김유정 사후 60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간된 《원본 김유정 전집》은 《김유정 전집》(한림대 출판부)의 보정판이다. 전신재 교수(한림대)가 철저한 원본교정과 꼼꼼한 어휘색인·참고문헌 목록 등을 통해 초판본의 오류를 바로잡고 150개의 어휘색인을 보충했으며 참고문헌도 대폭 보강했다.

백석과 노천명이 평안북도와 황해도를 정서적 원천으로 삼고 있다면, 김유정은 강원도의 걸쭉한 구어의 세계에 문학적 젖줄을 대고 있다. 김유정은 식민지 당대의 현실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하층민들의 삶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러나 비극적인 현실을 다루는 그의 작품은 개성적인 문체와 언어로 인해 해학과 골계의 미학으로 넘친다.

박태원·이상과 함께 근대문학의 형식과 문체확립에 기여한 상허 《이태준의 문학전집》도 기왕에 간행된 전집(깊은샘)을 바탕으로 하여 완전히 새롭게 체제를 갖추었다. 철저한 원본검토와 여러 판본의 대조를 거쳐 기존 판본의 오류를 정정하고 이제까지 경시되었던 수필과 기행문, 월북 후의 작품을 총망라했다. 전17권으로 기획된 이 전집은 올해까지 《달밤》·《해방전후·고향길》·《사상의 월야》·《왕자호동》·《황진이》 등 8권이 출간되었다.

1930년대에 정지용·김기림·이상·이효석·김유정 등과 함께 ‘구인회’를 결성해 주도한 이태준은 카프(KAPF)의 문학관을 비판하고 문학의 자율성과 예술성을 고수하면서도 현실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관심을 그치지 않았다. 선명한 인간상의 창조와 간결한 서술기법으로 1930년대에 ‘시에 지용, 소설에 상허’라는 당대적 명성을 획득했다.

이병기·조운제 등과 함께 1930년대에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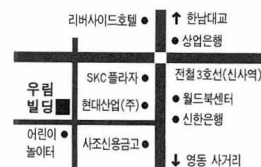
산에 오르면

어렵고 답답한 때일수록
산은 더욱 반갑게 우리를 맞아 줍니다.
넉넉한 침묵의 미소로
세속의 별것 아닌 번뇌쯤
한적한 바위 틈, 풀숲 사이에
묻어 두고 가라고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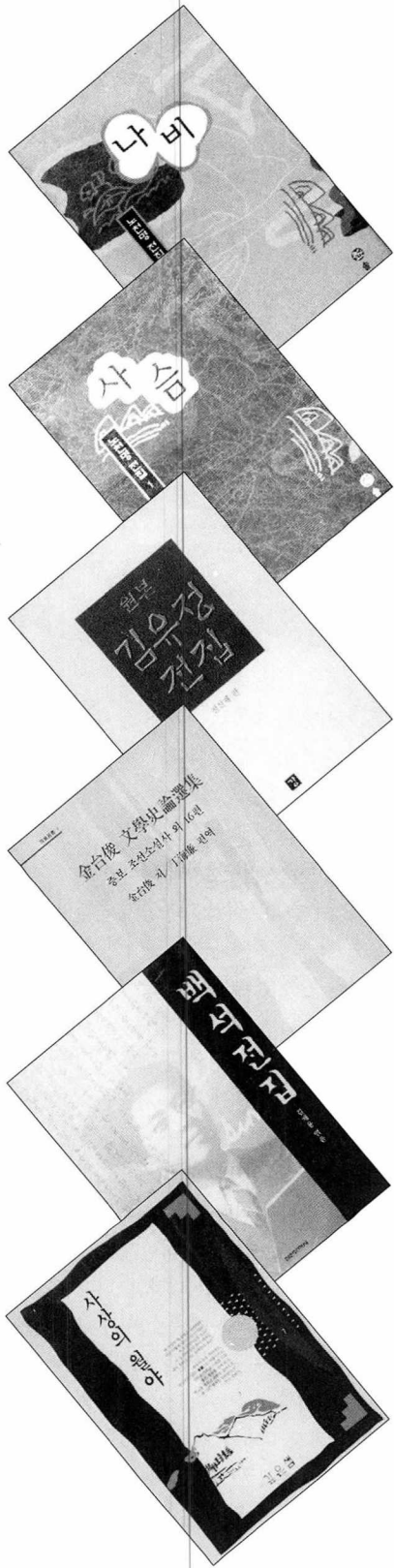
사업내용 | 집필: 자서전 · 회고록 · 개인출판 · 위인전 등
윤문: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사전류 · 참고서류 ·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백과사전 · 잡지 · 사보 · 학회지 · 교지 등

기계설비 | 매킨토시 7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4대
스캐너 3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프로 96).



三現編輯室 대표자: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 화: 549-6883~5 팩 스: 549-6877
천리안 ID: SAMYEUN



성이 있는 학문적 연구업적의 정수만을 모았다. 원전과 인용문을 찾아 일일이 대조하는 꼼꼼한 정성을 들여 천태산인의 연구업적을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증보 조선소설사〉에서 김태준은 조선의 소설이 이야기책에서 출발한다고 파악한 후, 리얼리즘 작가로서 김동인·현진건·염상섭·나도향을 꼽았다. 또한 경향문학은 현실을 전면에서 파악하고 소설을 자기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점에서 그 공적을 인정하지만, 사상성과 예술성을 통일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그 외에 삼국시대 문학의 조선적 특질을 분석한 〈조선문학의 특질〉, 향가의 성격부터 현대문학의 형성 이전까지 각 시대 문학작품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낸 〈조선문학의 역사성〉 등 김태준의 개척자적인 안목을 만날 수 있다.

국가·공공단체의 전집발간 지원 절실

잇따른 문학전집 발간으로 근대문학의 지도가 정밀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개척지로 방치된 작가와 작품들도 많다. 특히 '염상섭 전집'은 우리 문단의 가장 큰 과제다. 장편만도 무려 28편, 수백편의 단편과 평론 등 작품분량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대가의 조건을 두루 갖춘 염상섭의 문학적 성과물이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학계의 가장 큰 공백이다. 한편 출판사에서는 월북문인들 가운데 조벽암·권환·이찬 등의 전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학평론가 정호웅 교수(홍익대)는 "문학전집은 작가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값진 성과물이다. 그러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편집자의 사명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출판사의 영세한 자본과 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가나 공공단체, 대학출판부 등이 민족문화의 자산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 박천홍 기자

대 국문학을 개척했지만 분단문학사에서 철저히 가려져 있던 천태산인 김태준의 《김태준 문학선집》도 출간되어 국문학 연구의 이론적 지평을 넓혔다. 증보 조선소설사, 조선문학사론, 조선역사론, 가요론 등 4부로 이루어진 이 선집은 조선학 전반에 관한 논설·해설·저술 가운데 현실성과 역사